

창간2주년기념 축하 메시지



산업자원 확충, 경제 활성화, 정책구현에 역점

-국민편익의 집단에너지산업 중요-

국회산업자원위원장 _ 이윤성

집단에너지 회보 창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산업과 무역, 에너지 및 중소기업과 특히 관련 주무부처와 한국전력, KOTRA,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소관기관의 업무를 관리, 감독, 감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다자간 무역 협상, 고유가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대책 및 대체에너지 개발, 환율인상으로 인한 국내산업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 주요현안이 산적한 산업자원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의를 수렴하고 민생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과 파행으로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편성과 결산심사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심사보다는 나눠먹기식 편성과 요식적인 결산심사로 흘러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산업자원위원회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위원장을 맡은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당리당략이나 정쟁으로 인한 파행이나 졸속 운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과 대책마련에 전념하는 산업자원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혈세가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및 심사를 단행하겠습니다.

산업자원위원회는 실물경제의 핵심분야를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원화가 절상되면서 수출기반이 약화되고, 주요교역국과의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부진은 내수경기 침체와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

화로 이어져 국가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선진무역 인프라의 구축과 미래수출동력 확충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의 전략적 개척을 통한 안정적 교역구조의 확대와 정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의 전환,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강화, 지역간 균형발전, 부품·소재 산업의 활성화 등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고유가 상황의 지속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 에너지 수급의 한축인 지역난방을 담당하는 집단에너지산업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문제들의 해결과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해 산자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산업구조 합리화를 통해서 산업부분의 국가경쟁력을 확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등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산업자원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윤성 산업자원위원장의 주요 경력

- 인천중, 제물포고, 한국외대 졸
- KBS 정치부차장·사회부장·동경특파원
- 보도본부24시·KBS 9시뉴스 앵커
- 15.16.17대 국회의원(現)
- 국회 행사·문광·정보·건교·예결위원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現)
- 당대변인·총재특보·정책위 부의장
- 한나라당 인천광역시장 위원장
- 한나라당 4·30 재보궐 선거 공천심사위원장
-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당대회 의장(現)
- 한나라당 5.31 지방선거 중앙선거위원회 부의장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現)
- 번역서 『위대한 리더들 : 잠든 시대를 깨우다』/미래의 창/ 2006